
 산업통상자원부 <a href="http://www.motie.go.kr">http://www.motie.go.kr</a>		<b>보도자료</b>		
<b>2019년 12월 1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b>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10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				
배포일시	2019. 12. 10.(화)	담당부서	자동차항공과	
담당과장	양병내 과장(044-203-4320)	담당자	최혁기 사무관(044-203-4322)	

## 공공분야의 선도적 역할로 친환경차 대중화 앞당긴다!

- 산업부, 공공기관 대상 친환경차 의무구매 설명회 개최 -
- 2018년 공공분야 친환경차 2,461대 구매, 연간 신차 중 56.5% -
- 2019년 공공분야 친환경차 구매비중은 70% 이상으로 개선 전망 -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'19.12.10(화), 공공분야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 「2019년 공공분야 친환경자동차\* 의무구매 설명회」를 개최하였다. \* 친환경자동차 : 전기차, 수소차, 하이브리드차

### < 행사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19.12.10(화), 14:00~15:30 / 서울 역삼 GS타워 25층 강당
- 참석자 :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및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차량 구매담당자, 완성차 제작사, 에너지공단 등 100여명
- 주요내용 : 공공분야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 소개 및 친환경차 모델 소개·상담, '19년 친환경차 의무구매 실적 중간점검 결과 발표 등

- 산업부는 2016년부터 매년 공공분야 1,200여개 기관\*을 대상으로 매년 신차 중 일정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'공공분야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'를 시행하고 있다.

\*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(광역·기초)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등

- 이날 행사는 공공분야 차량 구매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의무구매를 독려하고,

- 현대·기아·한국GM·르노삼성 등 완성차 업체의 친환경차 모델을 소개하고 구매를 상담하는 자리로서 개최되었다.

### <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 제도 개요 >

- (법적근거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,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 제16조
- (대상기관)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(총 1,160개)
  - 예외기준\* 적용 시 실제 평가대상기관은 '18년 301개 기관
  - \* ▲전체 업무용 차량 보유 대수가 5대 이하, ▲당해 연도에 구매하는 차량이 2대 이하 등
- (주요내용) 매년 신규 구매(또는 임차) 차량의 70%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, 이중 80% 이상을 전기·수소차로 의무 구매
  - \* 단,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은 '17년 50% → '18년 70%로 상향

- 2016년 이후 친환경차는 팔목할만큼 성장하고 있다.
  - 2019년 10월 기준 국내 전기차 보급은 2016년 대비 7배 이상으로, 수소차 국내 보급은 2016년 대비 45배 이상 증가했다.
    - \* 국내 보급(누적) : (전기차) '16년 1.1만대 → '19.10월 8.3만대 (7.5배 ↑)
    - (수소차) '16년 87대 → '19.10월 3,951대 (45.5배 ↑)
- 이러한 친환경차의 성장은 공공분야 구매가 마중물이 되었다.
  - 공공분야 구매는 2018년 전기차·수소차 누적 판매의 약 10%를 책임지면서, 친환경차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.
  - 이에 산업부는 보다 빠른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의무구매비율을 '18년부터 50%에서 70%로 상향 조치하였다.
- 2018년 공공분야 의무구매 실적점검 결과, 2018년 공공분야(평가대상 기관 301개\*)에서는 총 4,356대의 신규 차량(내연기관차 + 친환경차)을 구매 또는 임차하였으며,
  - \* 전체 1,200여개 대상기관 중 ▲전체 업무용 차량 보유 대수가 5대 이하, ▲당해 연도 신규 구매차량이 2대 이하 등 예외기준 적용 시 실제 평가대상기관은 301개
  - 이중 친환경차는 총 2,461대(하이브리드차 987, 전기·수소차 1,474)로, 2018년 전체 신규 차량의 56.5%를 차지하였다.
  - 2017년 실적과 비교해 보면, 신규 차량 중 친환경차 구매비중은 6.3%p(2017년 50.2%) 높아졌다.

□ 특히, 공공분야 친환경차 구매를 선도한 실적 우수기관들의 사례가 주목을 끌었다.

- ① **우정사업본부**는 '18년 구매차량 23대 전량을 전기차로 구매,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친환경차 및 전기·수소차 구매비율 100%를 달성하였고,
- ② **제주도청**은 '18년 구매차량 44대 전량을 전기차로 구매, 10대 이상 차량구매 지자체 중 유일하게 친환경차 및 전기·수소차 구매비율 100%를 달성하였으며,
- ③ **한전KDN**은 '18년 구매차량 75대 중 전기·수소차 56대, 하이브리드 7대를 구매, 친환경차 90.6% 및 전기·수소차 74.6% 구매비율을 달성하여 친환경차 구매에 앞장섰다.

□ 반면, 2019년 공공분야 친환경차 구매실적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, 2019년 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.

- 2019년 공공분야(평가대상기관 211개 예상)에서는 친환경차 4,117대 (하이브리드차 1,773, 전기·수소차 2,344)를 구매(잠정)하여 2019년 전체 신규 차량 중 친환경차가 70%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2018년 실적과 비교할 때, 친환경차 구매비율은 약 15%p 내외 상승할 전망이다.
- 2019년 공공분야 친환경차 구매실적은 내년초 1,200개 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.


□ **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**은 “2022년까지 전기차 누적 43만대, 수소차 누적 6만 5천대의 국내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 구매가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.”고 강조하였다.

- 이를 위해, “2019년 친환경차 구매실적을 비롯해 각 기관들이 법적 의무구매기준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적극 안내하고 실적을 관리·지원할 계획이며,

-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차 충전인프라도 빠르게 확산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□ 아울러,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,

- 기관평가 반영 확대 등 기관별 구매 실적에 대한 피드백 강화, '21년 이후 의무구매비율의 100% 상향(현재 70%) 등과 함께,
- 다양한 친환경차 개발에 맞춰 의무구매대상을 승용차에서 버스·트럭 등 상용차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최혁기 사무관(☎ 044-203-43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